# 청송·구미 등 축제 릴레이… 경북도, 안전·편의대책 '이상무'

**사과·라면·불꽃쇼 등 주제 다채**
**지역별 특색, 관광 콘텐츠 발전**
**"경북,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청송사과축제 포스터.



구미라면축제 포스터.



울진 죽변항 수산물축제 포스터.



포항국제불빛축제 포스터.

경남도는 청송·구미·울진·포항 등 4개 시군에서 사과·라면·수산물·해병대 문화·불꽃쇼를 주제로 한 5개 축제를 잇따라 개최한다. 도는 지역별 특색을 관광 콘텐츠로 발전시키는 한편 축제 기간 안전관리와 교통·관람 편의 대책도 점검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문화관광축제인 '제20회 청송사과축제'는 4일부터 8일까지 청송읍 용전천 현비암 일원에서 열린다. '지금 청송! 사과로 물들다'를 주제로 청송사과 전시·판매와 문화공연이 펼쳐진다.

사과 쌓기와 껍질 길게 깎기, 당도 맞히기로 구성된 '사과올림픽'을 비롯해 꿀잼-사과난타, 황금사과 찾기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청송사과 꽃줄 엮기 전국대회와 제20회 개최 기념 블랙이글스 에어쇼도 열린다.

도 지정 최우수 축제인 '제5회 구미라면축제'는 6일부터 8일까지 구미역 일원에서 개최된다. 국내 대표 라면 생산시설이 있는 구미의 산업적 특색을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킨 축제다.

축제장에는 다양한 라면 요리를 맛볼 수 있는 '라면 레스토랑'과 면·스프·토핑을 조합해 나만의 라면을 만드는 '스프LAB & 셀프 조리존'이 운영된다. 세계 13개국 참가자가 요리 솜씨를 겨루는 '글로벌 라면 챌린지'도 열린다.

같은 기간인 6일부터 8일까지는 도 지정 유망 축제인 '제6회 울진 죽변항 수산물축제'가 죽변항 일원에서 열린다. '가자 죽변항!, 먹자 수산물!'을 주제로 청정 동해의 신선한 수산물을 선보인다.

맨손 활어잡기와 수산물 즉석경매, 해체쇼, 화합의 물회 퍼포먼스가 이어지며 어선 퍼레이드와 바다공방 체험도 마련된다.

해병대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2026 포항 해병대문화축제'는 14일부터 15일까지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해병의거리와 해병대 제1사단 일원에서 펼쳐진다.

평소 접하기 어려운 군부대를 개방해 장갑차 탑승과 군 장비 전시, 전투체력 체험을 제공한다. 한·미 해병대가 함께하는 민·관·군 화합행진과 군악대·의장대 시범, 서바이벌 게임, 미션 랠리도 운영된다.

도 지정 우수 축제인 '제22회 포항국제불빛축제'는 19일부터 21일까지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린다. 21일에는 국내외 불꽃 연출팀이 참여하는 국제불꽃쇼가 영일만의 밤하늘을 밝힌다.

건물 외벽에 LED 조명·영상·프로젝션을 활용해 빛과 영상을 연출하는 미디어파사드와 시민 참여형 야간 퍼레이드인 '나이트 카니발' 등 야간 콘텐츠도 선보인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역마다 가진 특색을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으로 발전시켜 경북을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metroseoul.co.kr

## 경남도, '우주항공도시 특별법' 제정 촉구

**9일 '영호남 범국민 결의대회' 진행**
**박완수 도지사 등 500여명 참석 예정**



경남도는 오는 9일 국회의사당 앞 계단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사천시·고흥군과 함께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촉구 영호남 범국민 결의대회'를 연다. 참가자들은 특별법의 11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상정과 연내 국회 통과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번 결의대회는 서천호·문금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천상공회의소와 여수(고흥)상공회의소가 주관한다. 지난해 12월 발의된 뒤 11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인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처리를 촉구하는 자리다.

대회에는 박완수 경남도지사(사진),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박동식 사천시장, 공영민 고흥군수를 비롯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사천·고흥 주민, 재경향우회 등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발언과 피켓 구호 제창 등이 진행된다.

지자체장과 국회의원들은 여야 원내대표와 국토교통위원장에게 영호남 시도민 서명부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들은 특별법 처리와 남해안권 우주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한다.

경남도는 지난 7월 15일 국회에서 관계 지자체, 여야 국회의원들과 특별법 제정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결의대회는 지난 10월 26일 여수에서 박완수 지사와 민형배 시장이 특별법 제정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 행사다.

/경남=박현철 기자 metrobusan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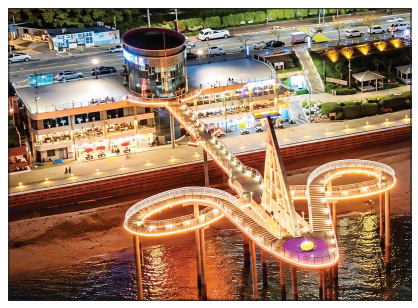
## 목포시, '대반동 야간경관 개선사업' 완료

유달유원지 일원 관광명소 육성

목포시는 대반동 유달유원지 일원에 미디어아트와 경관조명 등 다채로운 야간 볼거리를 조성하는 '대반동 야간경관 디자인 개선사업'을 완료하고, 3일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목포대교와 아름다운 바다 풍경이 어우러진 유달유원지의 야간경관을 개선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목포를 대표하는 야간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목포시 대반동 유달유원지에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비 23억원 투입해 2025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한 뒤,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4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으며, 10월 모든 공사를 마무리했다.


목포시 대반동 유달유원지 전경. /목포시

주요 사업내용은 옹벽과 해변에 비디오프로젝터를 활용해 목포의 이야기가 담긴 미디어아트를 설치해 이색적인 야간 볼거리를 조성하고, 노후 조명을 교체하는 등 경관조명을 개선했다.

/목포(전남광주)=이대호 기자 eogh7505@

## 홍성군, 가축전염병 비상방역체계 가동

내년 3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

홍성군이 겨울철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에 대비해 24시간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하고 선제적 차단방역에 나섰다.

홍성군은 철새 이동과 겨울철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7년 3월까지를 '동절기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군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3대 가축전염병의 지역 유입을 막기 위해 군청에 특별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비상연락망과 신속한 초동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군 관계자는 "전국 최대 축산단지인 홍성군은 단 한 번의 방역 실패로도 지역경제와 국가 축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가축전염병 유입을 막기 위해 모든 방역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홍성군이 동절기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해 거점세척소독시설에서 축산차량에 대한 세척·소독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홍성군

/홍성(충남)=양대승 기자 zzica@

## 경기신보, 디지털 상담 서비스 강화

영업시간 외에도 보증 관련 정보 제공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영업시간 외에도 보증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상담 채널을 변경해도 문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디지털 상담 서비스를 강화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영업과 거래처 대응 등으로 금융 상담 시간을 내기 어렵고,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오가며 같은 내용을 반복 설명해야 하는 불편도 있다. 경기신보는 이러한 현장 여건을 고려해 지난 10월 26일 이지원 고도화를 통해 상담 시간과 채널에 따른 제약을 줄였다.

AI 챗봇은 이지원과 경기신보 홈페이지, 카카오톡에서 보증 대상과 준비 서류, 신청 절차 등을 365일 24시간 안내한다. 영업을 마친 저녁이나 주말에도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보증 신청을 준비할 수 있다.

전화 상담에는 AI 콜봇을 도입했다. 고객이 문의 내용을 말하면 AI 콜봇이 먼저 응대하고,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원에게 연결한다. 다만 상담원 연결은 고객센터 운영시간인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상담 이력도 통합했다. 이지원과 고객센터, 카카오톡 등에서 문의한 내용을 연계해 다른 채널로 상담을 이어가더라도 이전 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 지역 이모저모

### 경기도

### 창업기업 성장 단계별 지원 확대

경기도가 제2판교 경기스타트업브릿지를 중심으로 코스닥 상장 민간기업 3사와 협력해 스타트업 발굴·육성과 투자, 기술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경기스타트업브릿지는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창업기업의 보육과 투자유치, 기술협력,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하는 민간 창업보육 거점이다. 지난해 9월 보육공간 개소 이후 약 1년간 120개사를 입주·보육하고 실무 중심 프로그램을 60여 차례 운영했다.

경기도는 앞으로 경기스타트업브릿지를 중심으로 공공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민간기업의 투자·기술·사업화 역량을 연계해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김대의 기자

### 하동군

### '뉴욕 하동차문화관' 개관

하동군이 2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 맨해튼의 TEO Nomad에 '뉴욕 하동차문화관'을 열었다고 밝혔다.

개관식에는 김현수 하동군수와 신승미 TEO Nomad 대표, 이정미 뉴욕한국문화원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현지 공공기관·한인 단체 관계자와 차 전문가, 대학 교수, 식음업계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군은 '뉴욕 하동차문화관'을 통해 하동 차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고 미국 시장의 판매·수출 경로를 확보할 계획이다.

/하동(경남)=박현철 기자

### 문경시

### '머큐리광통신' 기업 유치

문경시는 인천에 있는 광섬유·광케이블 전문기업 ㈜머큐리광통신의 문경 이전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유치는 민선9기 출범 이후 첫 기업 유치 성과다.

문경시는 청년 인구 유출과 고령화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 유치를 핵심 시정과제로 추진해 왔다.

시는 이번 기업 유치를 계기로 고부가가치 산업 기반을 확충하고 연관 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문경(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 경주시

### 폐현수막 자원순환체계 구축

경주시는 폐현수막을 재생 원료로 전환하고 다시 현수막으로 제작·사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계는 경주시가 폐현수막을 수거하면 SK케미칼이 화학적 재활용 기술로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은 원사 생산과 품질 검증을 맡고, 대한미디어와 리앤생은 원단 제조와 인쇄를 담당한다. 완성된 현수막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구매해 사용한 뒤 다시 수거·재활용한다.

시는 경주지역 상업용·행정용 게시대에 우선 사용하고 향후 활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